

2021학년도 정시모집 실기(면접)고사 기출문제

모집단위	종 목		문 제
디자인학부, 무대미술전공	발상과표현		(문제 은행 35번) 친환경과 유기농을 발상·표현하시오.
	기초디자인		<p>(문제은행 30번)</p> <p>인쇄물로 제공된 사물들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, 화면에 자유롭게 구성·디자인하시오.</p> <p>**주의사항**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공된 사물 이외의 형상은 표현하지 말 것. 2. 제공된 사물의 색 이외는 사용하지 말 것. 3. 제공된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표현하는 것은 무방함. 4. 재료는 자유롭게 선택할 것. 5. 화지방향은 가로로만 할 것.
영화영상전공 (연기)	실기 고사 [지정 연기]	소재	<p>들어봐요.. 사실 무서웠어요.. 무섭고 떨리고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어요. 우리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.. 어떻게 만든 인연인에 망가트려요. 얼마나 힘들게 만든 건데.. 나도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게 때때로 억울하고 아니 하루 내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요..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..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. 같이하면 되잖아..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면 되잖아.</p>
		소재	<p>우리 처음 만날 날 왜 그렇게 슬프게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? ... 힘들 때 있잖아요? 혼자 울지말고.. 제가 이렇게 김치찌개 딱 해가지고 오겠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는 울고싶어도 절대로 혼자 울지 마세요... ... 마음이 추접스럽잖아요. 혼자 울면은... 꼭 약속하세요. 앞으로는 절대로 혼자서는 안 울겠다고</p>
		소재	<p>“방은 저 구석방인데 침대도 있어요. 혼자 주무시기에는 충분할 거예요. 한 달에 삼백 불을 받겠습니다. 오늘부터라도 방을 쓸 수 있어요. 미리 말씀드리자면 집에 누굴 데리고 오거나 손님을 초대하지는 말아주세요. 세탁기가 있으니까 빨래는 쉽게 하실 수 있어요. (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든다) 이것이 이 아파트의 열쇠예요. 오늘부터 우린 부부가 되었으니까요. 아직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---결혼식은 라스베이가스에서 올리기로 해요. 이번 주말에 출발하죠. 미리 말해두지만 드는 비용과 신혼 여행비는 당신이 부담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. 자. 오늘부터 우린 부부예요. 자 축배를 덜어요.” (잔을 들어올린다)</p>

모집단위	종 목		문 제
연극전공 (연기)	실기 고사 [화술]	소재	<p>사람들이 왜 춤을 추는지 아니? 사실 우리는 모두 춤을 추고 있어.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. 살기위해서는 누구나 몸부림을 쳐야 하거든. 숨 쉬는 것부터가 몸부림이지.</p> <p>손짓, 발짓. 입술도, 눈꺼풀도 춤을 추지. 울고 있는 사람의 어깨도, 기쁨에 겨워 꺾충 꺾충 뛰는 사람도. 힘든 하루를 잊기 위해 술에 취한 사람들의 비틀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아니? 화가 나서 온 몸을 부르르 떨며 발을 구르는 사람들의 몸짓이 얼마나 화려한 지 알아?</p> <p>치열하게, 슬프게. 부드럽고 따뜻하게. 때로는 아름답게...</p> <p>우리는 다 그렇게 춤을 추며 사는거야</p>
		소재	<p>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? 커피를 쏟은 건 그쪽인데 어떡해야 될지 왜 내가 생각해요! 잘못은 그쪽이 해 놓고 왜 나한테...(울고 싶어도, 정신차리고) 난 십분 후 면접이에요. 지금 입고 있는 외투 벗으세요. 내가 먼저 면접 보고, 옷 돌려줄게요. (다른 사람들에게 소리치는) 저기요, 커피잔 들고 화장실에 들어오지 마세요! 손에 든 커피, 여기 다 넣어주세요! 취직 못 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불쌍한 인생들끼리 서로 초 치지 맙시다!</p>
		소재	<p>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? 이제 저에게 심판의 날이 왔으며, 제 몸에 하느님의 손길이 닿는 소리가 들립니다. 방탕한 사람에게 끝이 온 겁니다.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고해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바입니다.</p> <p>‘아버지의 피에 관한한 전 절대로 죄가 없습니다!</p> <p>방탕하게 살았지만 선을 사랑했고, 매 순간 개과천선하고 살고자 노력했지만 금수처럼 살았습니다.</p> <p>만약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신다면...</p> <p>저도 저에게 저의 하느님을 빼앗지 말아주십시오!</p> <p>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!</p>
		소재	<p>원고와 피고! 재판부는 여러분의 사건을 청취했습니다만 누가 이 아이의 진정한 어머니인지 분명치 않습니다. 본인은 재판관으로서 이 아이에게 어머니를 찾아줄 책임을 지고 있지요. 그래서 본인이 시험을 해볼까 합니다. 자, 여기 백묵으로 그려진 원이 있습니다. 아이를 그 안에 데려다 놓으세요. (새우박가 미헬을 원 안에 세워놓는다. 아이가 그루셰를 보고 웃는다) 원고와 피고, 원 양 쪽 옆에서 서세요! (총독 부인과 그루셰가 원 곁으로 간다) 두 사람은 각각 아이의 손을 하나씩 잡으세요. 진실된 어머니란 힘을 갖게 마련이지요. 원에서 아이를 끌어내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입니다. 자 어서 아이를 끌어내 보세요.</p>
디지털만화영 상전공	만화 능력 테스트	소재	<p>전제: ‘어디든 생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열쇠(Key)가 있다 제한: 상상하는 곳은 과거에 가 본적이 있는 곳이어야 하고 문(Door)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.</p> <p>열쇠와 문의 형태는 자유로우며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에 위의 열쇠를 이용해서 열면 본인이 생각하는 곳으로 연결된다.</p> <p>만화적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4칸 이상으로 연출하십시오.</p>